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청아한 가을 하늘 아래 재잘대며 남산을 산책하는 유치원 아이들을 만나면 미소가 절로 나온다. 즐거운 순간이다. 고향화 사회, 나 역시 나이 들어 가는 인생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이들과 동행하는 즐거운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데 지난 10월 11일 이후 국회 감사를 통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유아 교육 비리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기타 연주자로 변신한 강기훈

관행처럼 저질러 온 사립 유치원들의 구체적인 비리를 알게 될수록 교육적 양심 여부에 대한 회의와 허망한 마음조차 일어난다. 감사 결과와 전직 유치원 교사들이 고백한 사실들은 왜 이곳에 '헬조선'이란 신조어가 난무하는지 절감하게 만든다. 200명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닭강탕이 닭 새 마리모만 우려낸 국물이란 사실은 오히려 약과다. 명품 가방과 미용실 등 원장의 온갖 사적 소비가 유치원 체크카드로 지불됐다는 기록은 충격적이다. '졸졸이 사망'처럼 이어지

진실을 찾아가는 예술 치유 '1991, 봄'

는 비리를 알면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두려워 침묵했던 이들이 이전 진실을 털어 놓을 용기를 갖게 된 변화가 보인다. 가을바람과 함께 다가온 그런 변화의 바람은 적폐 청산이 표현의 자유와 함께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런 아픈 사태를 접한 후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어른으로서 면목이 없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런 가운데 진실을 찾아 방향해 온 24년에 걸친 기록을 담아 낸 '1991, 봄' (2017, 권경원)을 보게 되었다. (김기철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가짜 진실의 피해자 강기훈과 더불어 그 파장을 기타 연주곡 7개 악장 단락의 음악 다규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진실 조작 과정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아픔, 반민과 방황이 기타 연주자로 변한 그를 따라가면서 관련자 인터뷰로 풀려 나간다. 당시 권력에 휘둘린 언론보다 비밀스러운 소통으로 여겨졌던 하이텔이나 천리안과 같은 PC 통신 작업 부분이 나 감사의 감압적 심문 과정 혹은 시위 풍경 등이 인형극으로 재현되어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 주기도 한다. (이재로운 문제제기 퍼펙터의 작업이다.) 진실 조작에 따른 피해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암 투병을 하며 힘 빠진 손가락으로 연주에 몰입하는 강기훈의 변화된 모습은 예술 치유 현장처럼 보인다.

1987년은 '(책상을)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며 박종철 고문치사를 소크사로 위장했던 독재 권력에 맞선 6월 항쟁

의 역사적인 해이다. 그런 강렬한 기억을 회고한 실화 영화 '1987' (2017, 장준환)은 표현의 자유 속에 국민의 힘을 증명해 냈다. 반면 민주화로 가는 길이 일사천리가 아니라고 해도, 4년 후인 1991년 봄은 잔인했다. 대학 축제 기간 해방제로 벌어진 민주화 시위는 강경 진압을 당하면서 그해 봄, 11인의 청년들이 분신 및 투신, 또는 의문사에 처하는 난국에 휘말려 들었다. 어버이날 청년 김기철의 투신 뉴스로 다뤄는 시작된다. 20여 년 전 청년 시절 투쟁담을 이제 중년이 되어 회고하는 인터뷰들은 #1악장 '기타를 위한 전주곡' 연주회로 연결된다. 이렇게 회고담에서 연주로 이어지는 구성은 과거 기억에 접속하는 플래시백이란 영화 기법도 우리가 영화를 보는 순간 현재진행형이란 모티프 증명해 낸다. 즉, 과거 아픈 기억이기에 의식적으로 없앤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는 이 다규의 고백처럼 공존하는 것이다.

진실 찾기 권력 게임판을 보여 주는 24년에 걸친 회고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1894년 프랑스 육군 포병 드레퓌스는 간첩 혐의로 억울한 국가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정보 유출 문건에 'D'란 암호명을 혐의로 본 것은 매우 불충분한 근거였지만, 그가 유대인이란 점에서 당시 프랑스의 인종 차별 관행이 작동한 셈이다. 그런 부당한 현실을 목격하며 베스트셀

러 작가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백한다'란 글을 문학 신문 '로르르' (L'Aurore)에 투고해 부당한 권력 집행에 저항한다. 이로 인해 졸라는 비난은 물론 협박까지 당하지만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후 정당한 문학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정의 위해 연대하는 또 다른 힘

권력의 진실 조작 스캔들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한 이 사건은 권력의 힘에 휩쓸리는 우리 사회 특유의 또 다른 지식 권력을 목격하는 아픔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이 지배하건 정의로운 진실을 위해 연대하는 또 다른 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피해자에서 후원자로 전복적 변신을 하며 만든 '(재)진실의 힘'이 원불교 문화원에서 개최한 음악 여행 '마음에서 마음으로'는 바로 그런 예술 치유의 장이다. 유서 대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매진했던 이석대 변호사의 경우 세월호 특조위 단식 고통을 겪으면서도 강기훈처럼 기타를 연주한다는 고백은 흥미롭다. 대필 조작 사건이 트라우마로 작동하기에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꺼리는 그를 '강기타'라 부르며, 청년 음악가들과 연대하는 연주회 공연은 치유와 희망을 예술 효과로 증명해 준다.

예술의 동력은 아름다움 이전에 고통에너지를 먹고 생산되는 깨우침이다. 그의 은은한 기타 선율과 담백한 사진 작업 이미지를 통해 그 깨우침이 전달된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끝까지 노동계 설득 총력을

지역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자 공장 설립 사업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한국노총이 '협상 내용 전면 공개'를 조건으로 협상 합류를 검토하고 있고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도 대화를 통한 합의를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시에 한해서 투자 유치와 관련한 9개 항의 질의에 이어 최초 협상 요구안, 합작법인과 공장 운영 주체, 투자 유치 로드맵 등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 44시간, 초일 연봉 3500만 원 보장, 주 5일 근무, 월 2회 특근' 등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작성 중이다.

광주시는 또한 공문을 주고받는 방식의 소통이 미흡하다고 보고 한국노총에 직접 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주말 열린 한국노총 체육대회를 찾아 '한국노총의 의견을 모두 수

용하겠다. 함께 가자'고 호소했고, 윤종해 광주본부 의장도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새로운 길을 같이 가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4일 민주당과 광주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당·정·정의 지원을 약속하고 지역 노동계의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광주시는 노동계의 불참에 대비해 제3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전체 일로인 지역 경제의 도약은 물론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통 큰 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광주시도 '명분 쌓기'식의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노동계를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부지 문제 합의 한전공대 설립 큰 산 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한전공대 부지 선정을 한전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전남이 따로따로 유치전을 벌임으로써 빚었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돼 한전공대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및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엇그제 공동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는 일체의 정치적·지역적 고려 없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하며,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전공대 부지를 두고는 광주시와 남구,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유치전을 벌여 왔었다. 이에 한전은 지난날 중간 용역보고회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해 부지 조건에 맞는 입지를 추천'하는 방식과 '전문가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주 민간공항 무

안 이전'에 이어 한전공대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시도가 또 한 번의 대응적인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엔 한전 측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한전공대 설립의 큰 산 하나를 넘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은 지자체 합의단 도출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설립단은 현재 한전공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데 '전문가위원회의 입지 선정'과 '지자체 합의 추천'이라는 두 트랙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이제 부지 선정 과정의 갈등이라는 하나의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도와 정치권은 대응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한전공대가 당초 목표대로 오는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고

장성호 수변길과 출렁다리, 어떻게 대박이 났나

상 스포츠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가장 완벽한 내륙 수상 스포츠 환경을 갖춘 덕분에 2008년부터 전국 규모 조정 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처럼 관광 자원으로 무궁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장성호는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다. 너무나 귀한 자원임에도 쓸모를 찾아주지 못해 기껏해야 메기탕이나 먹으러 가는 곳으로 인식돼 왔던 게 사실이다.

'장성호를 이대로 뒀선 안 된다.' 군수로 부임한 뒤 나는 장성호에 국민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수없이 장성호를 방문한 나는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수년 전 장성호를 찾았을 때 호수를 둘러싼 임도를 트레킹하는 분들을 만났다. 그분들이 내게 말했다. "소문만 안 나서 그렇지 장성호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호수와 산의 경치가 어우러진 곳이 많지 않아요. 우리도 기대 없이 왔다가 감탄해 매번 운입니다." 관광객들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이거다!' 장성호를 트레킹 명소로 만들자. 데크와 출렁다리를 만들어 걷는 재미를 더하면 관광객들이 몰릴 것이라고 확신

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장성호 수변길'과 '엘로우 출렁다리'다. '장성호 수변길'을 걸으면 숲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도 2시간 40분이면 전 코스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험하지 않기에 동호회원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찾아도 좋다. '장성호 수변길'의 백미는 호숫가를 따라 설치된 1.2km 길이의 데크길이다. 그 자체로 그림처럼 아름다울 뿐더러 탁 트인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아무렇게나 셔터를 눌러도 '작품'이나올 정도로 경치가 빼어나다. 한쪽에선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를, 다른 한쪽에선 물이 절벽을 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엘로우 출렁다리'는 또 어떤가. 장성호 상류 용곡리 호수 협곡을 연결한 길이 154m의 이 다리는 장성호 수변길 1.2km 지점과 2.7km 지점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원주 시간을 단축해준다. 그뿐만이. 아름다운 장성호를 한눈에 바라보며 출렁거리는 다리를 건너는 스릴까지 만끽할 수 있다. 의외적으로 만든 '장성호 수변길'과 '엘로우 출렁다리'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장성호 수변길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걷기 길로 선정됐으며, 전남도로부터는 9월의 추천 여행지로 뽑히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엘로우 출렁다리'는 만들자마자 주말만 되면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가 됐다.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이 온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장성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장성호 프로젝트'는 원대하다. 장성호를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래서 총 34km에 이르는 '장성호 수변 100리 길'을 테마별로 조성하고 장성호 바로 아래에 강수욕장, 민물고기 생태 학습장 등을 갖춘 수상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걷고 보고 즐길 거리를 모두 갖춘 관광단지가 탄생할 것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희준 교수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소개된 조선 후기 문장가 유한준의 말이다. 군수인 나는 이 말을 고향을 사랑하면 방치돼 있는 관광지에서도 쓸모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고 싶다.

청춘 특·특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10%로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청년 10명 중 한 명은 실업자인 안타까운 상황. 더군다나 점점 더 높아지고 많아지는 기업들의 요구 사항,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채용 인원 등 극심한 취업난에 일부 청년층에서는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비경제 활동 인구 중 '그냥 쉬었음'은 총 182만 4000명으로 이 중에 20대(20~29세)가 15.7%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취업을 포기한 가장 큰 원인은 '취업이 어려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시도를 하여도 안 될 것이라는 좌절감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취업난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은 일부만이 승리자가 되고 대다수는 자책감과 무기력을 느끼며 취업 실패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패배자가 됩니다. 결국 이러

한 실패가 계속되면 자신에 대한 불신과 함께 실패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하며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며 방황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경우처럼 말이죠. 이러한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누구나 실패라는 벽에 막혀 자리에 주저앉기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대부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면 병이라며 비호는 표현이 있지만, 이 말은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힘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을 되새기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 이 실패의 아픔은 근육이 손상된 후에 근육통처럼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더욱 단단하게 해줄 거라고. 다만 이 아픔에 익숙해서 나태해 지거나 무기력해지지 말자고.' 언제나 그렇듯 우리 앞에는 평탄한 길만이 펼쳐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급격한 경사, 절벽 그 외에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길들의 연속.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픔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해줄 겁니다. 제자리에 멈춰 주저앉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그 편안함은 우리를 더욱 좁막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젊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또한 젊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나가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프면 병이라며 비호는 표현이 있지만, 이 말은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힘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을 되새기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기에 실패할



김용호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2학년

나리되는 햇볕은 따갑고 옷깃을 스치는 바람은 쌀쌀해진 10월.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지키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목표지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획을 도중에 포기했거나 애초에 시작조차 못해서 자신이 기대했던 목표포 한 모습은커녕 올해 초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본인의 모습에 좌절하며 남은 시간을 그저 제자리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2018년 8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43만 5000명, 청년 실업률은

無 等 鼓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그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된 때도, 그 히말라야 8000m급 14차 중반 정도 등반을 마쳤을 즈음이었다. 엄홍길·박영석 대장의 명성에 가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연히 무산소 8000m 등반 기사를 접한 후야 그의 도전에 주목하게 됐다.

경북 예천 출신인 그는 광주 산악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었다. 광주시 산악연맹이 지난 2005년 꾸린 '한국남가파르바트(해발 8125m) 루팔대 장벽 원정대' 대원으로 참가해 전남대 출신 고이현조 대원과 함께 루

달했고, 두 발로 150km를 걸어 베이시캠프에 도착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 도움을 받지 않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다. 앞서 2007년에도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섰다지만 박영석 대장의 사고 소식을 듣자 등정을 포기하고 구조대에 합류할 정도로 뜨거운 가슴을 지녔다.

그는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를 마다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도전적인 코스를 택했다. 산악인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 극지(極地)에 오르려 하는 걸까? 라인홀트 메스너는 '죽음의 시대'라는 책에서 극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지점은 적어 팔백 중양 직등 루트로 정상에 오를 것이다. 남가파르바트는 1953년에 오스트리아 산악인 헤르만 불이 초등에 성공했지만, 세계 최장인 4500m 길이의 중앙 직등 루트는 이탈리아 산악가 라인홀트 메스너가 1970년에 처음으로 오른 난코스였다.

14차 완등의 마지막 목표는 에베레스트였다. 그는 2013년 5월, 이색적인 무동력 원정을 시도했다. 'From 0 To 8848' 프로젝트. 해발 0m인 바다(인도양 간지스강 하구)에서 카누를 타고 150km를 이동한 후 다시 자전거로 1000km를

인홀트 메스너는 '죽음의 시대'라는 책에서 극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지점은 적어 팔백 중양 직등 루트로 정상에 오를 것이다. 남가파르바트는 1953년에 오스트리아 산악인 헤르만 불이 초등에 성공했지만, 세계 최장인 4500m 길이의 중앙 직등 루트는 이탈리아 산악가 라인홀트 메스너가 1970년에 처음으로 오른 난코스였다.

14차 완등의 마지막 목표는 에베레스트였다. 그는 2013년 5월, 이색적인 무동력 원정을 시도했다. 'From 0 To 8848' 프로젝트. 해발 0m인 바다(인도양 간지스강 하구)에서 카누를 타고 150km를 이동한 후 다시 자전거로 1000km를

*/송두록 편집국장·예향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